



박소현의 섹.시.토크

미혼 시절, 여자가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다. 평범하게 성격 좋고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가 있는가하면 반드시 쌍꺼풀이 없는 남자여야 한다는 외모적인 기준이 확실한 여자도 있다. K에게 있어 그 기준은 손가락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이 굵고 짧은 남자를 좋아했다. 그런 손이 재주가 많고 성실하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고 오직 굵고 짧은 손가락 하나에 반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다. 다행히 남편은 재주가 많고 성실해서 그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졌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그거 아니? 다들 코 큰 남자가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코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손가락으로 판단을 해야 한대."

끝나기 무섭게 친구들의 시선이 다들 K를 향했다. K 남편의 손가락 길이가 짧은 것은, 그동안 그녀의 입을 통해 누누이 강조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시선을 받은 K는 살짝 당황하며 말했다. "저 말을 믿어? 우리 남편 작지 않아." "몇 센티나 되는데?"



한 친구가 우정을 링계 삼아 예의 없는 질문을 작구로 날렸다. "그걸 어떻게 알아? 자를 가지고 재 본 것도 아닌데." "하긴, 한번 재보겠다고 나서면 다들 필적 뭐겠지?" "그래도 꼭 한번 재보고 싶긴 해." 다들 한번쯤은 내 남편이 평균치가 되는지 혹은

시 미달은 아닌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때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지는 않지." "어떤 방법?" "다 쓴 두루마리 휴지 심 있잖아. 발기했을 때 그걸 장난삼아 끼워보는 거야. 그게 지름은 3.7센티 정도 되고 길이는 보통 10센티 정도 되거든."

"남편 사이즈 알고 싶으면 두루마리 휴지 심을 장난삼아 끼워 보는거야 지름 3.7cm 길이 10cm 정도 되거든"

든, 그게 잘 끼워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끼워진 다음 심 위로 몇 센티가 남는지(?) 정도로 대충 짐작이 가능하긴 해." "아휴, 그걸 어떻게 끼우냐?" "맞아. 산통 다 깨지겠다."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하지, 미리 침대 옆에 비치 해 뒀다가 장난삼아 기습적으로 해야지.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치는 12센티래."

다들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쩔지 새겨들는 분위기였고 그것은 K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이 기회에 남편의 누명(?)을 벗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이즈에 대해 하등의 불만 없이 결혼생활 7년을 잘 누려왔기 때문이다.

며칠 뒤, 드디어 육식 화장지의 휴지가 다 떨어진 것을 안 K는 결전의 날이 왔음을 알았다. 그 날 밤, 그녀는 평소답지 않은 적극적인 태도로 남편을 자극하는데 성공했고 성공을 확실한 순간, 신속하게 휴지 심을 들이댔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자기도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음을 뽐냈다. 그런데 K는 웃지 못했다. 누명이라 생각했던 속설이 누명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그만 확인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날 밤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K는 나른한 만족감에 취해 잠 자리에 들면서 혼자 생각했다. 평균이 무슨 소용 있나?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덧붙여 생각했다. 두루마리 휴지 심을 필요이상 크게 만들어 유부녀들을 심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말이다. 휴지회사에 건의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 칼럼리스트>

뉴스퀴즈

80. 무장 세력 탈레반으로부터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피랍 후 45일만인 2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51일만에 고국 땅을 다시 밟은 것입니다. 봉사단원 23명은 7월19일 이 나라 키프에서 칸다하르로 가던 중 납치됐으며 지난달 13일 2명이 처음 석방된 데 이어 이번에 19명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피랍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음 7월 26일 甲戌)

- 36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48년생 하투를 조심조심 보내라. 60년생 부부사이에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 72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명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84년생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1
37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49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61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73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신사숙고하라. 85년생 매사에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행운의 숫자 : 09, 33
38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쳐 준다. 50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 62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74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행운의 숫자 : 21, 16
39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경이요. 51년생 가네가 시끄럽고 여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63년생 전화위부터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7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5, 43
40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많구나. 52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때때로 신중함이 있어야. 64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6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시는 금물. 행운의 숫자 : 17, 27
41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65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77년생 촌본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2, 28
42년생 중의 불평사가 발생한다. 54년생 거점과 메인의 불평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66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78년생 백사가 손조롭다. 행운의 숫자 : 04, 35
43년생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55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오니 조심하라. 67년생 이해없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항해야 하리라. 79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38
44년생 문서 작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증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8년생 타에 의한 사인과 손재가 우려 된다. 80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곁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8, 41
45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7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69년생 친구 친척간에 후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81년생 짐차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42
46년생 헛 문자로 눈물만 걱정된다. 58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리라. 70년생 재사가 손조롭게 활동되리라. 82년생 예기치 못한 억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43
47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여수선하다. 59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71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3년생 응달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01,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문의: (주)후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완도 투명산 (본보 9월6일자 7면)이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완도군 금일면 동백리 선착장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생일면 백운산(해발 483m)의 뒷산 능선이 앞산에 가려졌는데도 투시된 것처럼 보인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네티즌들은 "신기하다"면서 "합성 아니냐, 착시 현상이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아나운서가 된 이윤아(23)씨도 화제가 됐다. 2006 미스코리아 서울 미이씨는 6일 발표된 2007년 SBS 공채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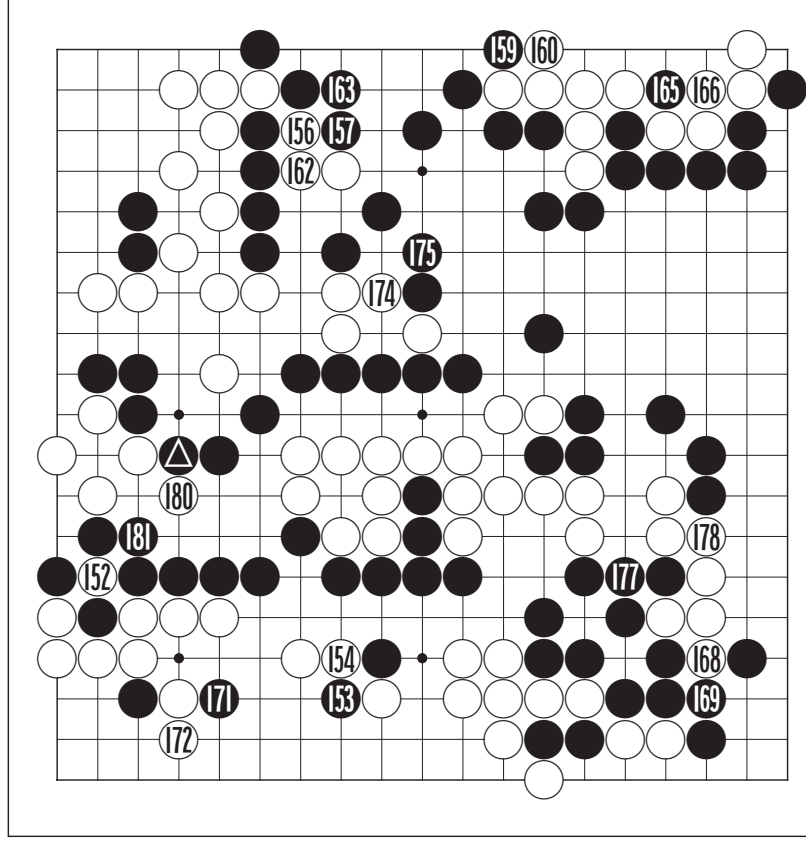
"신기하다" 완도 투명산 무더기 클릭

에 최종 합격, 장은영·한성주·서현진·김주희 등에 이은 또 한 명의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됐다. "개미 허리"를 과시하고 있는 개구무먼 김미연도 최근 체중 조절로 허리 둘레가 18인치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면서 사진 등을 찾는 네티즌들이 잇따르면서 검색어에 포함됐다. 또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71살을 일기

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색어에 올랐고 미국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ipod) 라인 신제품 '아이팟 터치(iPod Touch)'도 관심을 끌었다. 한정된 상품을 초저가로 공급하는 '700마켓'도 화제가 됐다. 농수산식품이 운영하는 '700마켓'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하드디스크 스토어로, 소규모 점포에 인건비·광고비·인테리어 비용 등을 최소화한채 70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최근 SBS 아나운서 공채에 최종 합격한 이윤아씨.



결정적인 헛수 10보 (152~181)

전보에서 이창준 5단이 기세로 패를 걸어간 것이 결국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말았다. 흑 ▲로 막혀서는 승부가 걸린 패가 나고 말았다. 더군다나 패감은 흑이 많다. 백 152로 따냈으나 흑 153으로 쪼뚫힌 것이 무한정의 팻감을 예약한 수로 이제 패는 백이 이길 수 없게 되었다. 이창준 5단은 믿고 있었던 것은 백 156으로 끊어가는 팻감이다. 흑이 153으로 쪼뚫히는 수는 손해수라 두어 오지 못할 것으로 믿고 패는 할만하다고 속단해 버린 것이다. 김영수 5단은 난전의 명수라는 소문대로 팻감을 써가는 데서 노련미를

바둑소식

한국 4명, 삼성화재배 8강
한국은 7일 유성 삼성화재연수원에서 열린 세계바둑오픈 2회전(16강전)에 12명이 출전했으나 중국과 4-4 맞대결에서 모두 패하는 등 부진해 8강 진출자가 4명만 그쳤다. 전자랜드배 우승자 강동윤은 중국의 1인자 구리에게 힘이 달려 불계패했고, 노장 조훈현 9단은 중국의 신예 황이중에게 7집반패했다. 조한승은 지난 대회 우승자 차하오에게, 홍성지는 후야오에게 각각 패해 8강 문턱에서 무너졌다. 나머지 한국기사리 벌어진 대국에서는 이세돌과 박영훈, 유창혁이 승리했으며, 한상훈 조단은 이이창호 9단을 꺾고 8강에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87>

where can I buy trousers? 어디에서 바지를 살 수 있습니까?
A : where can I buy trousers?
B : on the 2nd floor.
A : thank you.
A : I want to buy a pair of trousers.
C : what is your size?
A : 30 inches.
A : 어디에서 바지를 살 수 있습니까?
B : 2층에서요.
A : 감사합니다.
A : 저는 바지를 사고자 하는데요.
C :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A : 30인치인데요.
* 실례지만, 이 부근에 서점이 있습니까? = Excuse me.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음, 딱 맞는데요. = let me try them on, hm ! they fit fine.

오하오우 니혼고 <987>

冷麵(れいめん)が食(た)べたいな。 냉면이 먹고 싶은데
A : お晝(ひる)ご飯(はん)は何しようかしら。
B : 冷麵(れいめん)が食(た)べたいな。
A : そうね。じゃ、きゅうりの千切(せんぎ)りを作るから手傳(てつだ)って。
B : うん、いいよ。任(まか)せといて。
A : 점심은 무엇으로 하지?
B : 냉면이 먹고 싶은데.
A : 그러지, 그럼, 오이 채썰기 할 테니까 도와줘.
B : 응, 좋아요. 맡겨 댈게.
お晝(ひる)ご飯(はん) : 점심
しようかしら : 하지?(여성스러운 말투)
手傳(てつだ)う : 도와주다
任(まか)せる : 맡기다

니하오 쑹구위 <177>

我来收费 남부 하러 왔어요
A: 我来收费。 Wǒ lái shōufèi.
B: 给我看一下单子。 Gěi wǒ kàn yíxià dānzi.
A: 这是水电费。这是电话费。这是物业管理费。 Zhè shì shuǐ diànfèi. zhè shì diànhuà fèi. zhè shì wùyè guǎnlǐ fèi.
B: 一共五千零八十六? Yìgòng wàn qiān bā shí liù?
A: 요금 받으러 왔습니다.
B: 영세서 한번 보여주세요.
A: 이것은 수도세와 전기세입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비입니다.
B: 모두 5천8백86원이에요?
收费 [shōufèi] 명 용을 받다
单子 [dānzi] 명 서서
物业管理费 [wùyèguǎnlǐfèi] 주택관리비

한자 이야기 <604>

左袒(좌단) 왼쪽, 옷통벗을 단
좌단(左袒)은 옷의 왼쪽 어깨를 벗는 것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내거나 환연이 힘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죽은 후 그의 아내 여후(呂后)가 권력을 쥐고 외척인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았다. 이윽고 여태후(呂太后)마저 죽자(B.C. 180) 이제까지 그녀의 위세에 놀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유씨(劉氏) 일족과 진평(陳平) 주발(周勃) 등 유방의 유신(遺臣)들이 외척 여씨(呂氏) 타도에 나섰다. 당시 태위(太尉)비술의 주발(周勃)이 군사들을 모아 놓고 영을 내리기를, "원래 한실(漢室)의 주인은 유씨이다. 그런데 무엄하게도 여씨가 유씨를 누르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한실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 상장군 주발은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여기서 여씨에게 충성하려는 자는 오른쪽 소매를 벗고(右袒), 나와 함께 유씨에게 충성하려는 자는 왼쪽 소매를 벗어 유씨의 편을 드는 의사를 나타내겠다" 한다. (史記, 呂后本紀)